



## 미 증시, CPI 관망심리 속 기대인플레이 상승 등으로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11 일(월) 미국 증시는 2 월 CPI 관망심리 속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엔비디아(-2.0%) 포함 AI 주가 약세를 보였으나 낙폭은 제한되며 혼조세 마감(다우 +0.12%, S&P500 -0.11%, 나스닥 -0.41%) 업종별로 소재(+1.1%), 에너지(+1%), 필수소비재(+0.6%) 강세, 산업재(-0.5%), 경기소비재(-0.5%), 부동산(-0.5%)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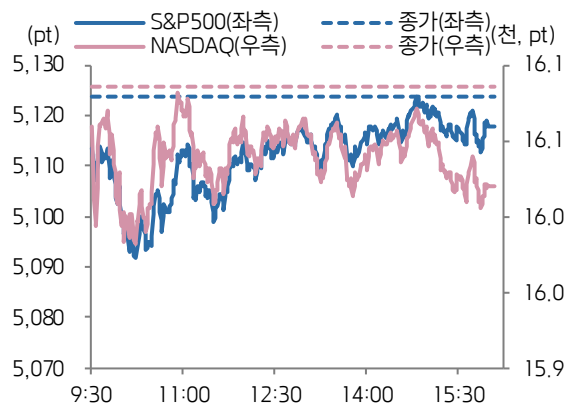
뉴욕 연은 1 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전월 3.0%)로 전월과 동일한 반면, 3 년 기대인플레이션 2.7%(전월 2.4%), 5 년 기대인플레이션 2.9%(전월 2.5%)로 지난해 8 월(3.0%) 이후 최고치.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소비자들이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WSJ 는 S&P500 동일가중 지수가 지난주 매그니피센트 7 중 애플, 테슬라의 주가 약세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무려 16 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난 12 개월간 약 33% 상승, 편입된 종목 중 5 분의 1 이 최근 52 주 신고가 기록, 이는 2021 년 5 월 이후 최고 점유율이라고 밝힘. 이는 랠리가 소수 빅테크 기업보다 금융, 산업재, 중소형주 등 더 광범한 주식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할 경우 '고물 관세'를 무기로 중국 등과의 무역전쟁을 예고, 특히 중국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이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공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철강, 알루미늄 등에 25% 이상의 고물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무역 전쟁을 벌인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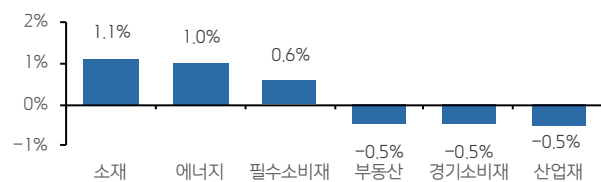
엔비디아(-2.0%), 슈퍼마이크로컴퓨터(-5.24%), 마이크론(-3.19%), AMD(-4.34%)는 하락한 반면 애플(1.18%), 알파벳(1.67%), 테슬라(1.39%)는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반등. 테슬라는 지난 5 일 방화로 알려진 변전시설 파손으로 생산이 중단됐던 독일 기가팩토리의 가동을 11 일부터 재개한다는 소식에 반등. 메타(-4.42%)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가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이 더 커진다고 페이스북을 비난한 영향으로 약세.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온 미국 의회는 지난 주 하원 위원회에서 바이트 댄스가 165 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금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50 대 0 으로 통과, 이번주 하원 표결 예정.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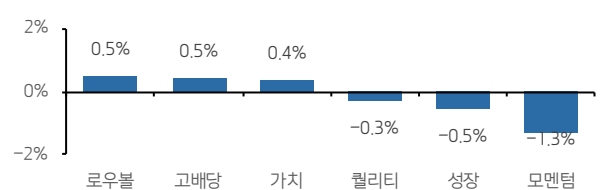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59.84	-0.77%	USD/KRW	1,310.12	-0.71%
코스피 200	358.34	-0.93%	달러 지수	102.87	+0.15%
코스닥	875.93	+0.31%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451.81	+0.5%	USD/CNH	7.18	+0%
S&P500	5,117.94	-0.11%	USD/JPY	146.93	-0.01%
NASDAQ	16,019.27	-0.41%	채권시장		
다우	38,769.66	+0.12%	국고채 3년	3.275	+1bp
VIX	15.22	+3.26%	국고채 10년	3.347	+2.6bp
러셀 2000	2,065.88	-0.81%	미국 국채 2년	4.536	+6.3bp
필라. 반도체	4,890.20	-1.36%	미국 국채 10년	4.098	+2.3bp
다우 운송	15,786.30	+0.43%	미국 국채 30년	4.261	+0.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30.42	-0.62%	WTI	78.05	+0.15%
MSCI 전세계 지수	768.77	-0.33%	브렌트유	82.21	+0.16%
MSCI DM 지수	3,367.08	-0.39%	금	2188.6	0%
MSCI EM 지수	1,039.07	+0.19%	은	24.46	-0.23%
MSCI 한국 ETF	66.23	-0.06%	구리	392.25	+0.9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8.6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월 CPI 경계심리로 인한 국내 증시의 반등 강도 제한 가능성 2. 엔비디아, AMD, 슈퍼마이크로 등 미국 AI 주 부진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애플, 테슬라 등 최근 상승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의 추가 강세가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지난 금요일 미국발 악재로 조정을 받았으나, 전일 미국 증시가 낙폭을 만회하며 혼조세에 그친 것은 매크로 단에서 2월 미국 고용지표가 증시에 번곡점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지 못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엔비디아(-2.0%), 슈퍼마이크로(-5.2%) 등 AI 주의 부진처럼, 주도업종을 둘러싼 밸류에이션 논란은 지속되고 있기는 함, 그렇지만 최근 증시가 숨 고르는 과정에서 시장 전반의 과열 부담이 일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인 잠재 추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는 요인(Ex: CNN의 Fear & Greed Index는 12일 기준 67pt로 Extreme Greed 영역에서 Greed 영역으로 내려온 상황).

이제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금일 밤 9시 30분에 발표 예정인 2월 미국의 CPI 결과에 주목하면서, 향후 증시 방향성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 우선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 2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 전망치가 각각 3.1%(YoY, 1월 3.1%), 3.7%(YoY, 1월 3.9%)로 형성되는 등 지난 1월 헤드라인 CPI 쇼크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모습.

컨센서스 뿐만 아니라, 헤드라인(최저 2.9% ~ 최고 3.2%)과 코어(최저 3.6% ~ 최고 3.8%)의 예상치 분포 역시 넓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CPI 예측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이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물론 2월 CPI가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길 정도(6월에서 3월 혹은 5월 FOMC)의 호재성 재료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2월 중순 이후 추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2월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오면 추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

하지만 연초 랠리에 대한 반대 급부 현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급등이 출현했다는 점이나(11일 발표한 뉴욕 연은 3년 기대인플레이션 기존 2.4%에서 2.7%로 상승),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 모델 상 4월 발표 예정인 3월 헤드라인 CPI가 3.29%(코어는 3.68%)대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 단기적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노이즈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 시점 상으로 3월 FOMC가 대기하고 있으며,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2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들의 생각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노이즈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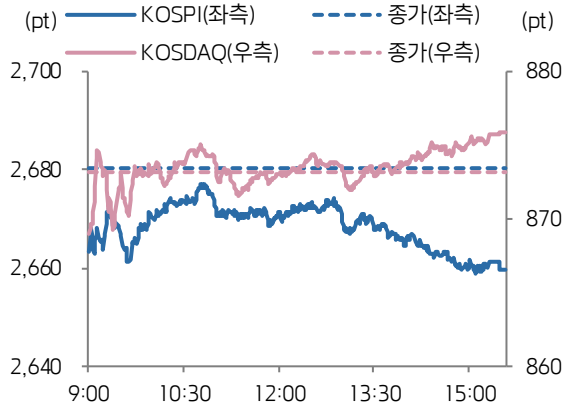
연간으로 길게 놓고 봤을 때, 고용시장 균열 및 완만한 수요 둔화, 디스 인플레이션 기조, 기업 이익 사이클 호전 등 현재 증시를 움직이는 메인 기제들은 바뀌지 않으므로, 연간 주식 비중 확대는 적절한 전략. 다만, 2월 CPI 결과 발표 이후 3월 FOMC까지 이어지는 노이즈가 증시에 기간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혼재된 미국 고용 지표 결과, 전세계 대장주 엔비디아 추가 급락 사태 등이 AI 관련 반도체주와 자동차, 은행 등 저 PBR 주와 같이 기존 주도업종 및 주도 테마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압력을 확대시키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0.3%).

금일에는 전일 추가 하락분에 대한 수급 상 되돌림 현상이 출현 하겠으나, 미국 증시에서의 AI 주 동반 약세, 2월 미국 CPI 경계심리 등으로 지수 흐름은 정체되면서 종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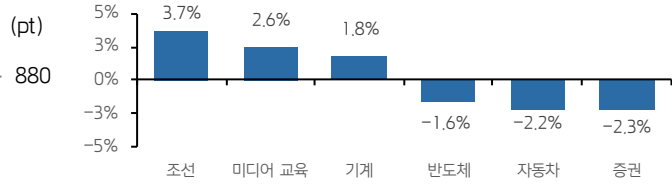
업종 간 순환매 관점에서는 최근 상승장에서 소외된 편이었던 애플(+1.2%, 온디바이스 AI 기대감 등)과 테슬라(+1.4%, 독일 생산 재개 등)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밸류체인주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전망. 또 위험자산 랠리의 주역이자 원화로 1억대에 진입한 비트코인의 장중 가격 변화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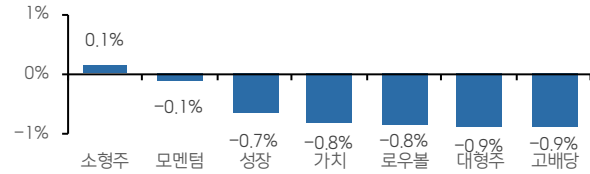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